



2004가 기억하는 작가와 책 세상 소설가

_심윤경

**우리문학을 견인할 당찬 신성新星,
단편으로 승부 거는 2005년**

소설가 심윤경(32)은 《나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한겨레문학상(2002년)을 수상하며 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학평론가 도정일은 “이 신예작가는 언어의 마력을 갖고 있다. 그 마력은 독자를 즐겁게 하고 황홀하게 한다”고 심사평을 밝히며 작품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독자를 즐겁고도 황홀하게 하는 ‘언어의 마력’은 2004년 발표한 《달의 제단》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취재에 많은 품이 드는 명문종가를 훌륭히 복원해 낸 것도 주목할 부분이지만, 중심소품으로 쓰인 10여 통의 옛 언찰을 조선시대 표기 그대로 옮긴 대목은 젊은 작가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유려하다. 명문 종가를 지키려는 할아버지와 명문 종가의 허

위를 밝힌 서자종손 상용 간의 반목과 대립을 다룬 《달의 제단》은 2004년 동인문학상 최종심사에서 김영하의 《검은꽃》과 박병의 승부를 펼치며 심윤경이란 이름 석 자를 독자들에게 각인시키기도 했다.

“동인문학상 독회심사에서 《달의 제단》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글을 보았을 때 가장 기뻐했습니다. 우상이기도 했던 선생들이 제 글을 읽어주신다고 하니 정말 짜릿했지요.”

거듭된 독회심사에서 “다시 읽어보니 역시 대단했다. 의고체 문장이 참 공들여 만들어졌다.”(이문열), “예스럽고 독창적이다. 특히 할머니가 쓴 답장 부분이 압권이다”(박완서) 등의 평이 이어지며 《달의 제단》 쪽으로 수상의 균형이 기울어 가는 듯했지만, 최종심사에서 심씨는 쓴잔을 들어야 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상처도 컸습니다. 나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쓰는 일밖에 없다고 위안했지요. 그 무렵 이틀 만에 단편 하나를 탈고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에 남은 앙금까지 싹 가신 기분이었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 그리고 문학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심씨 정신의 키를 한 뼘쯤 키워놓았다. 작가지세의 성숙뿐만 아니라, 그동안 확신을 갖지 못했던 단편 양식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안겨주었으니 괜찮은 거래인 셈이다. 심씨는 “그동안 단편을 쓰는 일이 힘들었다. 쓰고 나면 미진한 듯해 늘 마음이 불편했는데 단편이란 양식을 체득한 것 같다”며 흡족해한다.

“《달의 제단》을 쓰던 2003년은 악전고투의 시기였습니다. 2004년은 고생한 것을 보상받겠다고 원 없이 쉬었지요. 《달의 제단》을 통해 주목도 받고, 긴 휴식도 가져보았고, 많은 성찰도 얻었으니 2004년은 특별한 해로 기억될 겁니다.”

심씨는 당분간 단편창작에 몰두할 생각이다. 단편의 묘미를 맛본 터라 좋은 단편을 길어내고 싶은 것이 심씨의 바람이다. 몇 편의 단편을 발표한 뒤 소설집을 묶어 내는 것은 2005년의 목표다. 현재 구상을 대략 마친 새 장편은 자료를 수집중이다. 독립운동가 가운데 엽기적인 행각을 펼친 실존인물을 발견했는데, 그를 주인공으로 삼을 것이라 귀땀한다. 마음만 먹자면 집필에 달려들겠지만, 종가집 종손이라는 것과 여러 가지 배경이 《달의 제단》과 비슷해 한 템포 쉬는 마음으로 자료수집에만 몰두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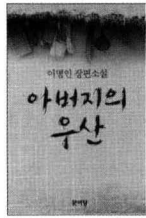
심씨에게 단편의 묘미를 안겨준 작품의 제목은 ‘행가래’. 〈실천문학〉 겨울호를 통해 내보일 예정이다. 심씨 문학의 새로운 울림이 궁금한 독자라면 〈행가래〉를 눈여겨보는 것이 좋겠다. 2005년 종종 얼굴을 내비칠 심씨의 단편들이 어떤 성과를 거둬낼지, 성숙한 작가로 거듭난 심씨의 2005년 행보가 주목된다. **☞**

취재 | 박용두기자·사진 | 박신우기자

심윤경이 읽고 권하는 책

아버지의 우산

이명인 지음
문이당
280쪽
값 7,500원



"미워하기는 곤란하고 사랑하기는 더욱 난처했던 우리의 아버지 이야기. 얼른 늙어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건 더 슬픈 일이었다." 난폭한 아버지와 만아들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늘에 묻혀 살아야 했던 아들, 그리고 그들 가족의 이야기. 가족에 대한 끈끈한 정이 무엇인지 들려준다.

장난 같은 또 다른 인연 유장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선의의 도둑인 한선목과 그를 잡으려는 형사 유장건,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선재의 삼각관계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자기 앞의 생

에밀 아자르 지음
옹경식 옮김
문학동네
358쪽
값 9,000원



"버림받은 아랍 꼬마와 늙은 유대인 여자의 사랑.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죽기 위한 간절한 투쟁." 버림받은 창녀의 아이인 모모는 창녀 출신의 유대인 로자 아줌마에 의해 길러진다. 모모는 로자 아줌마를 통해 절망을 딛고 살아가는 법,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손님

황석영 지음
창비
262쪽
값 7,500원



"열정으로 시작된 살인이 광기로 치닫는 숨겨진 과정을 우리 역사 속에서 찾아낸다. 이제는 한뼘도 식어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한백들의 목소리로." 1950년 황해도 신천에서 벌어졌던 미군의 양민학살이 동족 사이의 어처구니없는 보복학살극이었음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손님' 같은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의 대립이 학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다.

시민의 불복종

헨리 데이빗 소로우 지음
강승영 옮김
이레
212쪽
값 7,000원



"이 책이 어떻게 150년 전에 써어졌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데."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저서. 간디와 마틴 루터 킹에게 영향을 받아 폭력을 초월하는 힘과 그 영향력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소로우 시민운동에 대한 사유를 만날 수 있다.

도둑의 누이

송은일 지음
문이당
292쪽
값 8,800원



"숨은 보석 같은 책. 보석이 숨어버린 슬픈 운명에 대해서는 그저 침묵." 업동이 주인공 한선재와 오빠인 한선목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여기에 운명의

조선의 뒷골목 풍경

강명관 지음
푸른역사
394쪽
값 14,500원



"조선의 패션 리더는 누구였을까? 서민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퓨전 역사책." 도적떼의 출현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조리를, 도박의 성행에서 우연과 불확실성이 따리를 들고 있는 세상사를 진단한다. 큰 역사가 아니다. 조선의 뒷골목 풍경을 통해 살아 있는 역사를 보여준다.

거짓의 사람들

M. 스캇 펙 지음
윤종석 옮김
비전과리더십
360쪽
값 12,000원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악의 그림자를 정신과 전문의의 예리한 눈으로 고발한 책." 스캇 펙이 쓴 악의 심리에 관한 저작. 스캇 펙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치료 현장에서 맞닥뜨린 악에 대한 생생한 경험들을 사례로 들면서 거짓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헤친다.